



조간 제789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음력 6월 12일)



4일 오전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우에 떠내려 온 각종 폐기물과 침수피해를 입은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시간당 142.1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진 4일 오전 무안군 무안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빗물에 잠겨 주민들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밤새 물폭탄에 ‘속대발’...“어디부터 손덜지 막막”

현장속으로 무안·함평 호우 피해 현장 가보니

주택·상가 등 침수...주민들, 경로당·마을회관 대피
마을 대부분 흙탕물·각종 쓰레기 범벅에 ‘망연자실’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4일 오전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마을 입구부터 깊숙한 곳까지 전날 내린 비에 쓸려 온 흙탕물 가득했다.
주민들은 전날 내린 290mm의 과몰 폭우에 젖어버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 등을 마당으로 옮기고 있었고, 마을회관 한 쪽에는 흙탕물에 범벅이 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관련기사 2·3·5·15면
물건을 치우던 한 주민은 ‘하늘이 야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망연자실했다.

경로당에서는 침수를 피해 대피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전날 밤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 다투리를 이어갔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일부 주민들은 침수된 발을 돌아보며 농작물을 살렸지만 얼굴에는 허탈한 표정이 역력했다. 마을 인근 밭과 논은 대부분 빗물에 잠겨있었고, 일부 작물은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뽑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병연 이장(58)은 전날 밤의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당시 마을을 살피고 있던 박 이장은 오

후 8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굵어 지자 황급히 마을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이동시켰다.
폭우가 내리더니 불과 10분 만에 자신의 허리 높이로 흙탕물이 치올랐고, 몇 분 뒤에는 가슴 높이까지 불어났다.
대피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급류에 휩쓸릴 뻔한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일부 세대는 출입구가 물에 잠겨 답을 넘기도 했다.
박 이장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 7년 전 돌아와 다시 정착했는데 이렇게 큰 피해는 처음 겪는다”며 “지난 폭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부라부라 대피한 경로당, 마을회관에도 물이 찰 수 있다는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전남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천지전통시장도 폭우 피해를 입어 흡사 전경터를 방불케 했다.

시장 내부는 상인들이 점포 식탁, 냉장고 등 옮겨 놓은 가게 물품으로 가득 차 있

었고, 바닥은 물에 잠겨버린 과일, 채소 등이 흙탕물에 젖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인근 길목에는 인근 하천에서 흘러온 식물들이 뒤엉켜 있었다.
상인들은 너까래, 빗자루 등을 가지고 수도물을 뿌리며 가게 내부로 들어온 흙탕물을 쓸어 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장 한쪽에는 전날 차오른 물에 쓸려 온 드럼통, 파티션 등 각종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물품 배달 등을 위해 가게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는 흙으로 범벅이었다.

도로에는 물에 젖은 물품을 가득 채운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었다. 빗물에 잠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견인 차량들도 수시로 목격됐다.
일부 상인들은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 침수된 가게 내부를 보며 ‘어디서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주저앉기도 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차량을 옮기려다 하마터면 고립될 뻔했던 전날을 회상했다.

이씨는 “급하게 차를 옮기고 골목으로 나갔는데 불과 2~3분 만에 발목까지 물이 차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며 “대피할 엄두가 나질 않아 중요한 물건만 몇 가지 챙겨서 상가 2층으로 급하게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요즘 들어 날씨가 너무 야속하다”고 토로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290mm ‘극한호우’...광주·전남 피해 속출

무안 289.6mm 60대 사망...광주 173건·전남 409건 피해 신고

3일 광주·전남지역에 290mm에 달하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도로, 상가 등에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무안에는 8월 평균 강수량(249.0mm)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누적 강수량은 무안군 망운면에 위치한 무안공항이 289.6mm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안 윤남 234mm, 광주 186.7mm, 담양 봉산 185.5mm, 광주 풍암 175mm, 함평 월야 171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무안공항의 1시간 최대 강수는 142.1mm를 기록했는데 기상청은 200년만에 내릴 법한 폭우로 분류했다. 다만 무안공항은 기상관측 공식 지점이 아니어서 공식기록으로 집계되지는 않았다.
무안 윤남에도 시간당 110.5mm의 극한 폭우가 내렸다. 광주 광산(89.5mm), 담양 봉산(89mm), 흑산도(87.9mm), 함평 월야

(87.5mm), 광주(74.8mm) 등에도 강한 비가 관측됐다.
흑산도는 2024년 7월16일 79.7mm 이후 1년 만에 1시간 최대 강수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 소방본부에는 침수 등 17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침수로 고립된 14건 31명을 무사히 구조하고 건물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기타 12건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전남에는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안전조치 5건, 가로수 넘어짐 등 도로 장애 77건, 기타 24건 등 모두 409건이 접수됐다.
임영진·이산하·송태영·윤용성 기자 looks@

‘과잉생산 쌀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농안법도 본회의서 가결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

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